

寒洲 理學의 傳統과 그 사상사적 意義

권오영*

【 차례 】

1. 머리말
2. 이학의 형성 배경
3. 이학 이론의 전통과 創新
4. 이학의 사상사적 전개와 의의
5. 맺음말

【 국문초록 】

조선 말기의 저명한 성리학자인 寒洲 李震相은 朱熹의 『朱子語類』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주희의 초년과 만년설의 차이를 밝혀내었다. 아울러 그는 조선 理學이 16세기 중반 이후 걸어온 天命과 性, 情, 心에 대한 사상사적 논쟁의 편력을 검토하여 대담하게 心卽理說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그의 심즉리설은 당시 영남학계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학설이었기 때문에 잠시 異端으로 몰려 그의 이학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진상은 이황의 「聖學十圖」中圖와 下圖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심즉리설을 제창하였다. 그는 이황의 「心統性情圖」 중도의 핵심이 四端과 七情 모두 理發임을 주장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특히 이진상은 七情理發의 학설은 李灝, 李象靖, 鄭宗魯의 논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진상의 心卽理說과 七情理發 등의 새로운 해석과 闡明은 주희, 이황, 이익, 이상정, 정종로의 성리설의 傳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진상의 이학은 氣學과 洋學을 물리치고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제창되었다. 이진상은 朱子學에 근거를 두되 簡明하고 平易한 心卽理說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

* 한국학중앙연구원.

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이학은 이황의 학설에 背馳된다고 하여 이단으로 몰려 尙州 鄕校에서 『寒洲文集』이 불태워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許愈와 郭鍾錫 등은 심즉리설이 주희와 이황의 학설에 배치되는 학설이 아니라고 적극 변론을 하여 1916년에 陶山書院에서 상주의 焚書事件이 도산서원의 公議가 아니었다고 해명함으로써 한주 理學은 불 속에서 다시 살아남아 장차 전국 儒林이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하나로 통합되어 나가는데 정신적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한주 이학의 정통 계승자인 곽중석이 주도하여 1919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전국 儒林이 하나로 정신적 단결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이같이 主理 중심의 한주 이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心卽理說, 李震相, 理學, 寒洲文集

1. 머리말

19세기 조선 왕조는 대내외적 難局에 직면하여 朝野에 그 위기의식이 아주 팽배하였다. 이 시기 60여년간 전개된 세도정치는 부패하여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도저히 타개해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1811년 관서지역에서는 洪景來가 반정부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고, 1862년에는 경상도 단성에서 民擾가 발생하여 그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 근대로의 黎明을 알리고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지식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구제하기 위해 종교적 학문적 이론 정립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무렵 崔濟愚는 국내외의 정세와 민중의 고통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동학을 제창하여 민중을 구제하려고 하였다. 崔漢綺는 서울에서 氣學을 제창하여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李恒老, 奇正鎭, 李震相 등은 理學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였다.

1818년(순조 18)에 경상도 星州에서 태어난 寒洲 이진상은 평생 理學과 禮學과 易學을 탐구하여 세 학문분야에 두루 통달한 학자였다.¹⁾ 19세기 중

엽 영남의 대학자인 柳致明이 ‘江右大儒’를 꼽을 때는 반드시 이진상을 일컬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²⁾ 이미 이진상은 1850년대 초에 학문적 명성을 크게 얻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진상은 黨論으로는 南人에 속했으나 젊어서부터 당론을 떠나 남인·북인·노론·소론 학자의 문자를 공정하게 취하여 비교 연구하였다.³⁾ 그는 당시 영남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屏虎是非나 성주향내의 晴檜是非 등에는 간여하지 않았고, 평생 학문탐구에만 정신을 쏟았다.

이진상은 心卽理說을 주장한 이학의 대가였다. 그는 理學의 同異와 모순이 고급의 공통된 근심이라고 하면서 邪와 正의 판가름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⁴⁾ 그는 理氣의 설이 진실로 학문의 두뇌라고 하였고⁵⁾ ‘主理’ 두 글자는 천고의 성인이 서로 전해온 心法이라 하였다.⁶⁾

이 글에서는 이진상의 이학 형성 배경과 전통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어 그 이학 전통의 전개과정과 사상사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진상에 대한 연구는 宋贊植의 「朝鮮朝末 主理派의 認識·論理-寒洲 李震相의 思想을 中心으로-」(『韓國學報』9, 1977)를 시작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근년에 나온 李炯性의 「寒洲 李震相의 性理學 研究」(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와 李相夏의 「寒洲 李震相 性理說의 입론 근거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는 이진상의 성리학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이다.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이상하의 위의 논문 4~5쪽 참조.

2) 『寒洲文集』附錄, 권2, 行錄. “柳定齋先生, 數江右大儒, 必曰李某.”

3) 『寒洲文集』附錄, 권2, 行錄. “府君持論甚公, 不以黨議害正, 見國人自宣仁以來, 分朋相角, 大者有四, 南北老少, 家世南中, 且爲文穆淵源, 而遜齋公, 又守正不撓, 府君篤守世議, 然自少通看四家文字, 公取並觀, 其於義理之一輸一贏, 學問之一正一誣, 較如指掌, 不以彼而非, 不以此而是, 至如嶺中之屏虎, 鄉裏之晴檜, 皆不袒其左右, 以立赤幟, 而一鑑炯然, 妍媸俱顯, 非若無星之秤, 都無輕重於其間也.”: 같은 책, 같은 곳. “言溪門正脈, 必曰鄭先生.”

4) 『寒洲文集』 권16, 書, 答鄭若重.

5) 『寒洲文集』 권16, 書, 答李器汝: 권16, 書, 答李濟汝.

6) 『寒洲文集』 권16, 書, 答李器汝.

2. 이학의 형성 배경

이진상은 1818년 7월 29일 未時에 성주의 大浦里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李亨鎮(중 참판, 호는 涵淸軒)으로 성균생원이었고 아버지는 李源祐로 진사였다. 어머니는 金宗沃의 딸로 義城金氏이다. 이진상의 어머니는 일찍이 태몽을 꾸었는데 꿈에 어떤 물체가 큰 물결 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몸은 말이고 무늬는 용이었고 등에는 별무늬가 있었다. 갑자기 노인이 나타나 그 물체를 가리키면서 “너의 집 物이다”라고 하였다. 이진상이 태어나자 어머니의 꿈에 다시 노인이 나타나서 紅筆과 白筆 두 자루를 주면서 “잘 간직하라. 뒤에 반드시 쓸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진상의 8대조부 李廷賢은 鄭述의 문인이었다.⁷⁾ 그래서 이진상은 자기 집안의 家學 연원을 정구로 생각하였고, 정구를 李滉의 正脈으로 생각하였다. 이진상의 7대조부 李壽星은 겨우 3세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다. 어머니 牛峰李氏는 어린 아들을 잘 가르쳐 집안을 일으켰다. 이수성은 李彦英(浣石亭)의 문하에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다.⁸⁾

이진상의 고조부 李碩文(호는 돈재, 훈련원주부, 중 참판)은 李益秘(襄武)이 조정에 천거하여 무과로 벼슬길에 나아갔다. 그는 1762년(영조 38) 壬午禍變 때 사도세자가 화를 입게 되자 선전관으로 諫臣을 인도하여 抗義를 하였다. 그는 시국을 개탄하고 고향 성주로 돌아와 집의 사립문을 북쪽으로 내고 서울의 時輩와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를 北扉翁이라고 칭하였다.

李源祐는 이석문이 살던 옛터에 작은 집을 증건하고 그 軒은 ‘遯齋遺業’이라 하고 그 室은 ‘讀書種子’라고 하였다.⁹⁾ 그는 조카 이진상에게 큰 기대를

7) 『寒洲文集』 권36, 墓誌, 八代祖考月峯府君墓誌.

8) 『寒洲文集』 권36, 墓誌, 七代祖考贈刑曹參議府君墓誌.

9) 『寒洲文集』 권29, 序, 遯齋義契案序.

결면서 “똥宗 5백년에 비로소 사랑스런 조카가 있다.”라고 하면서¹⁰⁾ 손수『世德帖』을 써 주었다.

이진상의 학문은 李象靖·鄭宗魯에게 연원을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李亨鎭과 백조부 李奎鎭이 모두 정종로의 문하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진상의 증부 이원조는 1813년(순조 13) 상주에 가서 정종로를 찾아뵈었고, 1816년에는 안동에 가서 柳範休와 柳鼎文 부자, 柳致明을 찾아 보고 이상정의 학문 旨訣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특히 이원조는 1861년(철종 12) 1월에 疏를 올려 이상정과 정종로의 贈諡를 청하였다. 그는 “대개 우리나라의 正學이 陶山(이황)에서 집성되어 王文忠先生(김성일·유성룡)이 그 宗을 얻었다. 大山(이상정)은 앞에서 發揮하였고 立齋(정종로)는 뒤에서 祖述하여 연원이 바르고 의리가 크게 밝혀졌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황·이상정·정종로를 거론하여, 위로는 道脈이 서로 이어지는 것을 밝히고 아래로는 家學의 出自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다.¹¹⁾

이진상은 할아버지 이형진과 증부 이원조가 다진 학문적 기반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병이 잦아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는 50세 이후에는 건강이 아주 좋아져 회갑을 평온하게 맞이하였고 얼굴이 풍만하였다.¹²⁾ 그는 평소 邵雍의 시를 애송하였고 좌우에 “誠消百僞, 敬敵千邪”라고 써 붙였다.¹³⁾

이진상은 1831년에 順天朴氏 朴基晉의 딸(1814~1839)과 결혼하였다. 순천박씨는 이진상이 흑 바둑을 가까이하면 은미하게 諷諫을 하여 “夫家是

10) 『寒洲文集』附錄 권2, 行錄.

11) 『寒洲文集』권38, 行狀, 仲父凝窩先生行狀.

12) 『寒洲文集』附錄 권3, 墓誌銘.

13) 『寒洲文集』附錄 권2, 行錄: 권3, 墓誌銘. 邵雍의 詩는 “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子不爲貧. 須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爲月窟, 地逢雷處見天根. 天根月窟閑來往, 三十六宮都是春.”(『擊壤集』 권16, 「觀物吟」)과 “日月星辰高照耀, 皇帝帝霸大鋪舒. 幾千百主出規制, 數億萬年成楷模.”(呂祖謙, 『宋文鑑』 권25, 「書」)이다.

문학으로 門戶를 세웠는데 夫子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으니 마땅히 독서와 수행을 힘써 名業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세월만 보냅니까.”라고 하였다.

이진상의 집안 家計는 1836년과 1837년 무렵에 매우 어려웠다. 이진상은 아내에게 “부모님의 연세가 이미 높는데 위로 섬기고 아래로 기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君子가 생각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餘力이 있으면 학문한다는 뜻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어 “顏子는 부모님이 계신 날을 당하여 이주 가난했는데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으니 내가 오히려 무엇을 걱정하리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아내 순천박씨는 남편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를 하였다. 이진상이 청년기에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아내의 내조가 매우 컸다.

이진상은 少時부터 포부가 컸다. 그는 자긍심이 대단했고 사물을 오만하게 보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直言과 直行을 잘 하여 사망에서 공격을 받았으나 자질구레한 일에 구애받지 않고 높고 원대한 곳에 목표를 두었다.¹⁴⁾ 그는 主見이 매우 강하였고, 일생 太陽證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였다. 그는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모호하게 행동하여 겸손하게 자처하는 태도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¹⁵⁾

이진상은 여러 차례 자신의 성격에 대해 말하면서 솔직담백하고 기가 굳세어 직언을 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⁶⁾ 그는 자신의 性(心)은 성글고 기는 굳세며(性麤氣亢) 뜻은 넓고 재주는 성글다(志廣才疎)고 하였다.¹⁷⁾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언론을 할 때 옳으면 옳다고 하고 그르면 그르다

14) 『寒洲文集』 권23, 書, 答服舜華錫英 戊寅.

15) 『寒洲文集』附錄 권2, 行錄.

16) 『寒洲文集』 권29, 序, 直字心訣序: 권6, 書, 上李定軒.

17) 『寒洲文集』 권13, 書, 答宋楚叟: 권38, 行狀, 仲父凝窩先生行狀: 권28, 書, 寄承熙 乙丑.

고 하여 숨김이 없는 것으로써 주를 삼았기 때문에 당세 사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생각해보아 의심이 없으면 여러 차례 굴욕을 당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18)

이진상은 15세에 이미 經史, 政務, 文章, 制度, 星曆, 算數, 醫方, 卜筮 등을 두루 궁구하여 통달하였다. 이때 중부 이원조가 “선비가 되어 義理의 본領을 모르면 선비의 이름을 저버리는 것이다. 너의 재주가 궁구하는데 장점이 있으니 어찌 『性理大全』에 專力하지 않는가.”라고 하여 『성리대전』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이진상은 15·6세 때 ‘汕嶠’라고 自號를 하였다. ‘산교’는 汕水 동쪽의 嶠南에 태어나서 一汕에 의거하여 천하의 물을 알 수 있고 一嶠에 나아가서 천하의 산을 알 수 있다는 참으로 자부가 대단한 호였다. 얼마 후 ‘東嶠’라 하였는데 대개 海東의 교남에 태어나서 좁고 좁아 용납되지 못한다는 한스러운 뜻을 나타낸 것이다.19) 이진상은 20세 이후에는 ‘定窩’라고 호를 지었는데 ‘知止有定’의 뜻을 취하여 스스로 반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30세 이후에는 집에 ‘祖雲憲陶’라고 편액을 붙였는데, 朱子(雲谷)를 祖述하고 퇴계(陶山)를 憲章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다가 만년에는 ‘寒洲’라고 호를 하였다.

이진상은 할아버지가 치산을 경영하지 않아 집이 매우 가난하였다. 그래서 그는 직접 농사를 지었고 몸소 삼태기나 삽을 들고 밭에 나가 노동을 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작고한 이후에는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았다.20) 그는 일생을 朝廷의 得失과 官政의 利害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鄉民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21)

이진상은 초년에는 師承이 없이 열심히 공부하였다.22) 그는 論著의 癖이

18) 『寒洲文集』 권6, 書, 上李定軒.

19) 『寒洲文集』附錄 권2, 行錄.

20) 『寒洲文集』附錄 권2, 行錄.

21) 『寒洲文集』附錄 권2, 行錄.

있었고²³⁾ 일생을一刻도 한가하게 보내지 않았고 한 구절도 대충 말하는 법이 없었다.

이진상은 1835년(헌종 1) 18세 때 중부 이원조에게 ‘人心道心’의 요지에 대해 講을 듣고 여러 聖人の 설을 널리 구하여 主理의 旨訣을 터득하였다.²⁴⁾ 그는 이해에 「性命圖說」을 지었다. 이진상이 心을 理로 보는 견해는 이때부터 이미 그 단서가 열렸다.

1839년(헌종 5) 이진상은 「性學圖」와 「仁圖」를 지었다. 대략 本然과 氣質 및 養性和 矯性 등의 工夫와 功效를 논하여 聖賢이 性을 말한 본지를 밝혔고 知行, 求仁, 爲仁의 세목을 나누어서 仁의 體段을 밝혔다. 또한 이진상은 이듬해 「心經圖說」을 지었고 인하여 「夜氣箴」과 「明誠箴」을 지어 스스로 살피고 반성을 하였다. 이 「심경도설」은 陳柏의 「夙興夜寐箴」과 서로 表裏가 되며 이진상이 일생을 存養·省察하여 덕에 나아가는 공부의 기초가 여기에서 마련되었다.

1845년(헌종 11)에 이진상은 「心性情說」을 지어 心性은 一理라고 하였다.²⁵⁾ 그는 심성을 두 갈래로 보는 학설을 적극 비판하였다. 그는 “性은 氣質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오로지 性의 名義를 말하면 理일 뿐이고, 心은 반드시 형체가 있지만 오로지 心의 主宰를 말하면 理일 뿐이고, 情이 생기는 것은 氣가 用事할 즈음에 있는데 오로지 情의 根因을 말하면 또한 理일 뿐이다. 性이 따로 一理이거나 心이 따로 一理이거나 情이 또한 따로 一理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1851년(철종 2) 겨울에 이진상은 「直字心訣」을 지었다. 이진상은 朱熹가 이른바 “天地가 만물을 낳고 聖人이 萬事に 융합에 直일 뿐이다.”라는

22) 『寒洲文集』 권28, 書, 尙承熙 乙丑.

23) 『寒洲文集』 권35, 祭文, 祭族叔心墅公文.

24) 『寒洲文集』 附錄 권3, 墓表.

25) 『寒洲文集』 권25, 書, 答金宣伯別紙.

말에 인하여 이 직이라는 글자가 성인의 심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경전의 要語를 두루 뽑아서 상하 편으로 만들었다. 이진상은 만년에 아들 李承熙에게 저술을 보여주면서 특히 「직자심결」을 가리키며 “주자가 돌아가 심에 임하여 門人들에게 말하기를 天地가 萬物을 낳고 聖인이 萬事에 응함에 直일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나의 생각에는 이 한 글자가 堯舜이 전수한 中字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千古에 서로 전해온 心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²⁶⁾

이진상은 1857년 柳致明·金岱鎭·柳致皜 등 안동의 대표적 학자들을 방문하고 돌아와 『朱子語類筭疑』를 지어 주희의 초년과 만년의 설의 동이를 변론하였다.²⁷⁾ 그는 『朱子語類』를 1857년부터 1867년까지 11년간 정력을 다하여 연구하였다. 『주자어류』는 주희의 문인들이 기록하였는데 주희의 初年과 晩年の 학설이 다르고 기록한 자도 잘못과 바름, 자세하고 소략한 차이가 있어 모순되는 표현이 많았다. 이진상은 『주자어류』의 마지막 편까지 通讀하고 의심스런 부분은 筭錄을 하였다. 그는 朱子語類筭疑, 는 물론 四書筭疑, 詩書筭疑, 啓蒙筭疑, 三禮筭疑, 太極圖筭疑, 通書筭疑, 近思錄筭疑, 朱子大全考疑, 心經竅啓, 退陶書筭疑 등을 엮어 『求志錄』이라 하고 이 책을 편찬한 24년 뒤인 1884년에 跋文을 썼다.²⁸⁾ 또한 이진상은 「困知記辨」, 「四七辨」, 「南塘同異考辨」 등을 엮어 『辨志錄』이라 하여 主氣論에 대해 비판하였다. 특히 이진상은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주희와 이황 등의 언설에 대한 깊은 탐구 결과 1861년(철종 12)에 「心卽理說」을 지어 이황 이후 ‘心合理氣’를 굳게 준수하고 있던 영남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26) 『寒洲文集』附錄 권2, 行錄.

27) 『寒洲文集』권29, 序, 朱子語類筭疑序. 이진상이 1879년 12월에 서문을 쓴 것으로 보아(『寒洲全書』5, 亞細亞文化社, 1980, 3쪽), 「주자어류차의」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8) 『寒洲全書』5(亞細亞文化社, 1980) 362쪽.

1876년(고종 13) 일본이 군사를 이끌고 강화도에 들어와 조약을 맺게 되자 이진상은 성주 고을의 선비들과 회의를 하여 적을 토벌하고 義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윽고 그는 강화도조약이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파하였다. 이듬해 이진상은 쑤나라 역사 중에 『春秋』에 빠진 것을 모아서 위로 魯公으로부터 아래로 『資治通鑑綱目』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3편으로 만들어 『春秋翼傳』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877년 가을에 단성의 남사에서 향음주례를 행하고 「太極圖說」을 강하였다. 이때 수백명이 모여 열띤 학술토론을 벌였다.

1878년(고종 15) 윤3월 이진상은 이미 자신의 학설을 정리하여 『理學綜要』를 지었다. 그의 학설은 주희와 이황의 本旨에 뿌리를 두지 않음이 없었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聖賢의 學은 心法이다. 心이라는 것은 主宰의 理이다. 요점은 致知를 하여 理를 밝히고 居敬을 하여 理를 따르는데 있다.”라고 하였다.²⁹⁾ 그는 『이학중요』를 필생의 命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다.³⁰⁾ 그는 1884년 『이학중요』를 교감하였다. 이진상이 죽은 뒤, 1889년 5월 許愈·李種杞·郭鍾錫·尹胄夏·張錫英 등 문인들은 수십일 동안 大浦에 머물면서 『이학중요』를 교정하였고, 1894년 봄에 허유는 尹胄夏와 함께 三嘉의 并木書堂에서 『이학중요』를 교정하였다. 이러한 몇 차례의 교정을 거쳐 『이학중요』는 1897년 高령 會輔契에서 간행되었다. 이진상의 『이학중요』가 간행됨으로써 한주학맥의 학설은 ‘심즉리’설로 확고하게 정해지게 되었고 세상에 널리 발표되었다.

29) 『寒洲文集』附錄 권3, 墓表.

30) 『寒洲文集』권22, 書, 答郭鳴遠 乙酉.

3. 이학 이론의 전통과 創新

1) 心卽理說의 제창

이진상의 理學은 조선 성리학의 전개에서 어떠한 흐름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진상은 心卽理說의 사상사적 이해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우선 그의 심즉리설은 주희의 초년과 중년, 만년에 대한 발언을 시기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창된 것이다.³¹⁾

이진상은 『朱子語類』의 두 설을 인용하여 주희의 심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心이라는 것은 氣의 精爽이다.”라고 했고, “氣의 精英이라는 것이 神이 된다. 金木水火土는 神이 아니고 金木水火土가 되는 까닭이 神이다. 사람에게 있으면 理가 되니 仁義禮智信이 되는 까닭이 이것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1193년(계축)의 기록인데 氣의 精爽은 진실로 홀지게 氣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진상은 주희의 이 설을 중년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진상은 『朱子大全』에 呂祖儉에게 답한 편지에 “未發이라는 것은 太極의 靜이고 已發이라는 것은 太極의 動이다.”라고 하였고, 吳翊에게 답한 편지에 “太極이라는 것은 性情의 妙니 이에 一動一靜 未發已發의 理이다.”라고 한 구절을 거론하면서, 이를 통해보면 心이 性情을 主宰하는 것이 바야흐로 太極이 되고 性이 홀로 太極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맹자』 仁人心章에서 주희설은 “仁이라는 것은 理이니 곧 心이다. 心은 곧 理이다.”라고 하였고, 鄭可學에게 답한 편지에서 “儒와 釋의 다름은 儒는 心與理一이고 釋은 心與理二이다.”라는 설을 들면서 心을 理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³²⁾ 특히 주희의

31) 이에 대해서는 李相夏의 논문에서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이진상의 主理論과 心性論의 근거를 『朱子語類』, 『退溪文集』 등에서 정밀하게 고증하여 제시하고 있다(李相夏, 『寒洲 李震相 性理說의 입론 근거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32) 주희의 ‘心與理一’에 대한 주장은 『朱子語類』에 보인다. 『朱子語類』 권126, 釋氏. “꿈

‘心與理一’이란 언설은 王守仁의 心卽理와 구별이 되면서도, 이진상이 주자학 내에서 심즉리설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주자어류』에 “心이라는 것은 天理가 사람에게 있는 全體이다.”라고 하였고, “心은 진실로 主宰하는 것이니 이른바 主宰라는 것은 곧 理이다. 心 밖에 따로 理가 있는 것이 아니고 理 밖에 따로 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구절을 心을 理로 이해한 것으로 거론하였다.³³⁾

이진상은 이러한 주희의 말로 볼 때 주희의 만년 정론은 ‘心卽理’를 주장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³⁴⁾ 그는 대개 주희가 초년에 心이 已發이고 性이 未發이며, 이른바 未發이라는 것은 항상 타서 已發 위에 있고 已發의 즈음에 항상 이것을 끼고 스스로 따르니 이것은 心으로써 氣를 삼은 것이고 性이 心을 탄 것이라고 하였다. 중년에는 心이 氣의 靈이라고 하고 性을 心의 理라 하고 知覺을 心이라고 이르고 知覺은 性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일렀으니 이것은 氣에 나아가 理를 합한 것으로 다만 氣의 精爽이라고 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만년에는 心이 性情의 總名이 되고 오로지 主宰라는 것으로 말했다고 하였다.³⁵⁾

특히 이진상은 주희의 心에 대한 다양한 설명 가운데 “심이라는 것은 천리가 사람에게 있는 전체이다 [心者天理在人之全體]”라는 설을 취하였다. 이진상은 대개 心은 진실로 主宰하는 것인데 이른바 主宰라는 것은 곧 이 理이다. 지금 心이 氣라고 하면 氣가 一身의 主가 되고 馨色臭味가 眞心이 되고 父子君臣이 마침 남은 물건이 된다. 性이 理氣의 合一이라고 하면 善惡이 同體가 되

以心與理爲一，彼以心與理爲二，亦非固欲如此，乃是見處不同，彼見得心空而無理，此見得心雖空而萬理咸備也。雖說心與理一，不察乎氣稟物欲之私，是見得不眞，故有此病。大學所以責格物也。或錄云近世一種學問，雖說心與理一，而不察乎氣稟物欲之私，故其發亦不合理，卻與釋氏同病，不可不察。”

33) 『寒洲文集』 권27, 書, 答李肅明浚久別紙.

34) 『寒洲文集』 권23, 書, 答張舜華 癸未.

35) 『寒洲文集』 권18, 書, 答李聖養.

고 大本이 둘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³⁶⁾

한편 이진상은 이황의 心合理氣說을 인정하면서도 이황이 洪仁祐에게 답한 편지를 보면 心을 理로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황은 “心이 理氣를 합하고 있는 것은 惡이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처음을 극도로 하여 논해보면 心에는 또한 善이 있고 惡이 없다. 무엇 때문인가. 心의 未發에는 氣가 用事하지 않고 오직 理일 뿐이니 어찌 惡이 있겠는가. 오직 發하는 곳에 理가 氣에 가리어져 바야흐로 惡에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幾分善惡이고 先儒가 兩物이 相對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함껏 변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³⁷⁾

이진상은 心卽理라고 이르는 것은 실로 孟子와 程子 이래 고유한 論旨로 자기가 創出한 설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예로부터 성현이 모두 主理로써 근본 뜻을 삼았는데, 心과 같은 것은 性情의 統名이고 性은 곧 心의 體이고 性은 未發의 理이고 情은 心의 用이고 情은 已發의 理이니 이것은 실로 太極의 全體이다. 주희는 진실로 일찍이 “心의 動靜은 陰陽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반드시 “心은 진실로 主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니, 이른바 主宰라는 것은 곧 이 理이다. 처음부터 心外에 따로 理가 있는 것이 아니고 理外에 따로 心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心과 性이 —이면서 이니 —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心은 體가 없고 性으로써 體를 삼는다. 그라는 것은 무엇인가. 性은 다만 體이고 心은 도리어 用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⁸⁾

이진상은 성리학설에 있어 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³⁹⁾

36) 『寒洲文集』 권15, 書, 答李琢源根洙.

37) 『寒洲文集』 권27, 書, 答李肅明浚久別紙.

38) 『寒洲文集』 권25, 書, 答崔肅仲正基 乙亥. 心性의 관계는 『朱子語類』 권제5, 性理. “性對情言, 心對性情言, 合如此是性, 動處是情, 主宰是心, 大抵心與性, 似一而二, 似二而一, 此處最當體認”, “性猶太極也, 心猶陰陽也. 太極只在陰陽之中, 非能離陰陽也. 然至論太極, 自是太極: 陰陽自是陰陽. 惟性與心亦然. 所謂一而二, 二而一也.” 참조.

39) 이진상은 1834년부터 성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性命圖說』을 지었다. 그는

1853년(철종 4) 이진상은 「心字考證」을 지어 心의 本體·妙用, 形體·客用, 心性的 分合과 心氣의 차이를 밝혔다. 그리고 이해 明德에 대해 유치명과 편지로 토론을 하였다. 이진상은 명덕에 대해 本然의 明은 氣가 능히 加減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명덕이 만약에 진실로 氣가 淸하고 理가 徹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기가 이미 청하니 또한 무엇이 얽매이겠으며 이가 이미 철하니 또한 무엇이 어둡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1856년(철종 7) 이진상은 「主宰圖」를 지었다. 그는 「주재도」에서 제일 위에 上帝를 계시하여 主宰의 본원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神字를 계시하여 주재의 妙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天君을 계시하여 이 이의 眞體와 妙用이 사람에게 있어서 심이 되어 일신을 주재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는 “心이라는 것은 天理가 사람에게 있는 全體이다. 心의 眞體는 性이고 妙用은 情이니 性情의 外에 다시 따로 心이 없는데 性情을 妙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妙하게 하는 것은 理의 一이고 妙한 바의 것은 分의 殊이다. 一理로써 衆理를 妙하게 하는 것은 곧 心으로써 心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理는 홀로 움직이지 않으니 君이 되어서 나라를 主宰하면 氣가 臣이 되고, 父가 되어 집을 主宰하면 氣가 子가 된다. 主宰의 實理는 본래 하늘에서 받고 主宰의 공부는 오로지 사람에게 있으니 心은 진실로 一身의 主宰이고 敬은 一心의 主宰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진상은 40세가 되던 1857년(철종 8)에 안동 金溪에 가서 金興洛을 방문하였고, 그 길에 유치명을 찾아가 心性理氣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진상 : 心은 一身의 主宰인데 主宰 두 글자는 홀지게 理를 지적한 것입니까?
 氣를 겸하여 지적한 것입니까?

또 1839년 「性學圖說」과 「仁圖說」을 지었고, 1840년 「異端說」을 지어 主氣의 그림을 통렬하게 변론하였다. 1845년 「性情心說」을 지었다. 또한 이진상은 1840년 가을에 「四七辨」을 지어 그 뒤 교정을 하여 1855년 여름에 완성하였다.

유치명 : 理氣를 兼했다고 말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진상 : 理라고 말하는 것은 主宰를 하는 實이 되는 바이고 氣라는 것은 바탕이 되는 바로서 主재의 道具가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主宰의 妙는 理에 있고 氣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자가 말하기를 心은 진실로 主재하는 것이니 이른바 主재라는 것은 곧 이 理라고 했습니다. 그러한즉 主재 두 글자는 心中에 나아가 理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太極은 陰陽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萬化의 主宰를 말하면 다만 太極이고, 心이 진실로 理氣를 겸하지만 一身의 主재를 말하면 다만 理입니다.(중략)

유치명 : 理와 氣를 合해야 知覺하는 바이니 氣를 떠나서 理를 말하면 理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되니 어찌 主宰가 되겠는가?

이진상 : 下生이 말한 바는 또한 心中에 나아가 主宰의 實을 지적해 낸 것이 고 이 理가 氣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40)

이진상은 유치명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心性說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펴 려하였다. 유치명은 心을 ‘合理氣’를 보아야 한다는 말을 거듭 표명했지만, 이 진상은 유치명이 작고한 해인 1861년 “옛 사람이 心을 논하는데 心卽理보다 더 선한 것이 없고 心卽氣보다 더 선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심 즉리’설을 정립하였다.41) 이러한 그의 주장은 주자학 내에서 심즉리설을 제 창하여 보다 평이하고 간명한 이론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적 고뇌에서 나온 것이었다.42)

40) 『寒洲集』(초간본) 권40, 雜著, 花峽法語. “問心爲一身之主宰, 主宰二字, 是單指理歟? 兼指氣歟? 答曰兼理氣說無妨. 曰理也者, 所以爲主宰之實也, 氣也者, 所資以主宰之具也. 然主宰之妙在理 而不在氣, 故朱子曰心固是主宰底, 所謂主宰者, 卽此理也. 然則主宰二字, 就心中單指理, 明矣. 太極不離於陰陽, 而語萬化之主宰, 則只是太極, 心固兼理氣而語一身之主宰, 則只是理 (중략) 答曰理與氣合, 所以知覺, 離氣而言理, 理爲懸空, 烏得以主宰乎? 曰下生所言, 亦就心中指出主宰之實, 非謂主宰之不資乎氣也.”

41) 『寒洲文集』 권32, 雜著, 心卽理說.

42) 이진상의 ‘心卽理’설이 후일 ‘眞理를 어지럽히고 道를 헤치는 학설’로 道南通文을 통해 비판받자 이진상의 아들 李承熙는 孔子, 孟子, 程頤, 朱熹, 邵雍, 呂祖謙, 眞德秀,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曹植, 金宇顥, 張顯光 등의 心에 대한 견해를 간명하게 제시하여 ‘心卽理’ 세 글자가 聖賢의 眞訣이라고 주장하였다(『韓溪遺稿』 6, 辨, 道南通文條辨).

2) 七情理發說의 闡明

이황이 四端과 七情을 理氣互發로 이해한 후 오랜 동안 영남에서는 퇴계의 이기호발설이 지배하였다. 특히 李珣의 학통을 이은 기호학계에서 理發을 부정하고 氣發만을 주장하게 되자 영남지역에서는 시대가 흐를수록 理氣가 互發한다는 데서 한단계 나아가 이기는 各發한다는 견해까지 제출되었다.

1852년에 이진상은 「四七辨」을 완성하였다. 그는 이황의 「心統性情圖」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四端과 七情의 理發과 氣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는 「심통성정도」 中圖에서의 七情理發과 下圖에서의 七情氣發을 朱熹, 李滉, 李灝, 李象靖, 鄭宗魯의 성리설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도출해 내려고 하였다.

이진상은 이황의 「心統性情圖」의 中圖는 四端과 七情을 습하여 混淪하여 설명하였는데 氣를 섞지 않고 다만 理를 지적하여 一本의 實을 밝힌 것이고, 下圖는 分開하여 설명하였는데 주희의 “四端은 理의 發이고 七情은 氣의 發이다.”는 설에 보충을 하여 “四端은 理가 發함에 氣가 따르고 七情은 氣가 發함에 理가 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이진상은 四端과 七情은 습하여 말할 때가 있고 나누어서 말할 때가 있는데 주희가 “그 느낌이 있을 때를 미쳐 이 理의 發함이 아님이 없다.”라고 했고 “人心은 理가 血氣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이황은 “性情은 一理이고 靜이 있고 動이 있다.”라고 했고 또 “七情으로써 또한 仁義禮智에서 發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습하여 理를 주로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⁴³⁾

이진상은 이황이 ‘性情은 一理이고 靜이 있고 動이 있다’고 하였는데 자기의 설이 사실은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성현의 글 속에서 흘지게 情을 말한 곳에 氣發 두 글자를 말한 곳이 있는가 라고 하였다. 그는

43) 『寒洲文集』 권5, 書, 上柳定齋先生 別紙.

진실로 그런 구절을 하나라도 끄집어낸다면 행복을 하겠다고 하였다.44)

이진상은 이황이 초년에 『中庸』의 네 情으로써 理氣를 겸하고 善惡을 함하고 있다고 했다가 만년 定論은 다만 理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진상은 성현의 천마디 만마디의 말이 다만 하나의 理字이니, 操存涵養은 이 理를 두는 바이고 擴充省察은 이 理를 順히 하는 바이고 克己閑邪는 理를 해치는 것을 제거하는 바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현을 배우는 자는 당연히 主理로 實旨를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45)

그리하여 이진상은 이가 形氣에 因하는 것도 理發에 속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46) 그는 주희가 말하기를 ‘발하여 증절한 것은 이 중에 있는 이가 밖에 발현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陳淳은 ‘喜怒의 中節處는 性中の 道理가 流出한 것이다’라고 했고, 이황의 中圖說에는 ‘子思·孟子는 다만 理를 가리켜서 말했다’라고 했고, 이상정은 『중용』의 희로애락의 증절은 천성의 발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우리 학단이 서로 전해온 근본 뜻이 본래 이와 같다고 하였다.47)

이진상은 1857년 유치명을 찾아가 理氣互發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다. 그는 理가 氣에 떨어지지 않고 氣가 理에 떨어지지 않아 함께 발하고 함께 그치는 것으로, 처음부터 理는 동쪽에서 發하고 氣는 서쪽에서 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함께 발하는 가운데 主理主氣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호발이라고 이르지만 사실 各發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치명은 다만 理發이라고 말하면 克治와 存養 두 가지가 마땅한 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진상은 이가 발함에 기가 가리게 되면 근본은 모두 선한데 악으로 흐르는 것이니, 克治의 工은

44) 『寒洲文集』 권8, 書, 答尹士善 癸酉 別紙.

45) 『寒洲文集』 권8, 書, 與尹士善別紙: 권10, 書, 答姜耘父 別紙.

46) 『寒洲文集』 권10, 書, 答李稚庸.

47) 『寒洲文集』 권8, 書, 答尹士善別紙.

정히 그 氣를 절제해야 하고 存養의 공은 그 理를 순하게 완수하게 해야 하니 마땅한 바가 있다고 하였다. 유치명은 이러한 이진상의 설이 매우 새로우니 더욱더 涵泳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⁴⁸⁾

이진상은 이기는 交互한다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면서⁴⁹⁾ 결코 各發하는 이치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理發이고 人心七情은 理가 形氣에 因하여 발하기 때문에 氣의 發이라고 이를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⁵⁰⁾

이진상은 「心統性情圖」下圖에서 보면 四端은 道心이고 七情은 人心이다. 그리고 中圖에서 보면 四端과 七情은 모두 道心에 속하고 人心도 다만 理가 血氣에 속한 것이다. 홀지게 이 理를 지적한 것이 곧 情의 實이기 때문에 中圖에서는 바로 情字를 썼다. 氣를 兼하여 지적하는 것은 理에 發하는 곳에 分看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下圖에는 다만 '發爲'라고 썼다고 하면서 성현의 主理의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⁵¹⁾

이진상은 四端과 七情은 모두 情이니 性으로부터 發하지 않으면 情이라 이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性은 理이니 그 실은 다만 理發 一路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다만 그 發하는 바의 機에 理를 따르느냐 氣를 따르느냐는 구별이 있을 뿐으로 이황의 근본 뜻은 理發에 있다고 하였다.⁵²⁾

이진상은 四端과 七情이 모두 理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학설은 우선 주희가 「樂記」의 七情은 이 理의 發이라는 설과 이황의 「聖學十圖」에서 「심통성정도」의 중도에서 '本性이 發한 바이다'라는 설에 근본을 한 것

48) 『寒洲集』(초간본) 권40, 雜著, 花峽法語.

49) 『寒洲文集』 권15, 書, 答許退而 庚午 別紙. "中圖之爲皆理發, 情之實也. 下圖之理氣互發, 所發之機也. 惟其交互也, 故理發處氣便隨, 氣發處理便乘, 苟無此交互之意, 則亦不免於兩歧之病矣."

50) 『寒洲文集』 권16, 書, 答尹孝一永燁.

51) 『寒洲文集』 권16, 書, 答李舜若鐸紹: 권16, 書, 答李器汝.

52) 『寒洲文集』 권16, 書, 答李器汝.

이었다.

이황이 「心統性情圖」의 中圖에서 바로 七情(喜怒哀懼愛惡欲)을 썼는데 이 상정이 剔發하여 理 一邊을 말했다고 하였다.⁵³⁾ 그는 칠정에도 이발이 있다는 논이 과연 創新의 설이라서 分開의 뜻에 해가 있다면 자기의 설을 배척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지만 흠지게 칠정을 설명하는 곳에는 중도를 으뜸으로 삼아 이발이라고 이르고 사단을 상대하여 설명하는 곳에는 하도를 으뜸으로 삼아 기발이라고 이르는 것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⁵⁴⁾

이진상은 이황의 四端七情論이 「심통성정도」 중도와 하도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이가 기발을 힘껏 주장한 이후에 영남 학자들은 대체로 渾淪을 소략하게 하고 分開를 자세하게 주장하여 이와 기를 두 쪽으로 상대하여 설명을 하여 두 근본과 두 갈래의 의심이 없지 않다고 하였다. 이진상은 이러한 영남학계에 이상정이 나와서 혼란설과 분개설을 통해 비로소 主理와 主氣의 설의 논란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진상은 李瀼의 학설에서 七情理發의 단서를 찾았다. 사실 李瀼은 “四端은 形氣에 因하지 않고 直發하였기 때문에 理發에 속하고 七情은 理가 形氣에 인하여 발한 것인즉 氣發이라 한다. 저 氣發이 어찌 일찍이 理의 發이 아닌가.”라고 하여 七情理發을 주장하였다.⁵⁵⁾ 또한 이익은 “理發氣隨는 四端과 七情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七情은 理發의 上面에 다시 한 層의 苗脈이 있는 것이니 形氣의 私가 그것이다.”라고 하였다.⁵⁶⁾ 이진상은 이에 근거하여 칠정이발의 단서는 이익이 비로소 열었으나 마감하지는 못했다고 하였다.⁵⁷⁾

53) 『寒洲文集』 권9, 書, 與李謹休 乙丑 別紙.

54) 『寒洲文集』 권9, 書, 與李謹休 乙丑 別紙.

55) 『星湖全書』 7, 四七新編, 重跋: 『星湖全集』 권23, 書, 答愼耳老 辛酉·壬戌.

56) 『星湖全書』 7, 四七新編, 重跋: 『星湖全集』 권23, 書, 答愼耳老 壬戌.

57) 『寒洲文集』 권10, 書, 與姜耘父 丁巳. ‘公喜怒理發說’은 愼後聯이 처음 제기한 것인데, 李瀼이 이를 받아들여 『四七新編』重跋에서 언급하자, 尹東奎가 이를 반박하여 이익이 그 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후담의 ‘公理上喜怒哀道心說’은 이익의 조카 李秉休

그러나 이진상은 人心七情은 理가 形氣에 因하여 발하는 것이라고 한 이익의 설은 깊이 一本의 깊은 경지를 터득한 것으로 후세에 어진 이가 다시 태어나도 아마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높이 평가하였다.⁵⁸⁾

이진상은 『심통성정도』 中圖에서 七情은 中節의 情과 四端의 情을 합하여 氣에 섞이지 않는 것이고 다만 理를 지적한 것이지만, 下圖에서 七情은 氣發 理乘한 것으로 四端到 대하여 말한 것으로 끝에 또한 氣를 아울러서 말하여 性의 本善을 보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 이진상은 이상정이 李仁燠(天膺)에게 한 답서에서 『중용』의 喜怒哀樂의 中節은 天性的 發이 된다. 천하의 達道가 어찌 일찍이 血氣에서 생겨 氣가 理에 順하여 발한 의사가 있겠는가.”라고 한 것을 제시하였다.⁵⁹⁾ 또한 이상정이 李象遠(希道)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심통성정중도』는 진실로 剔發說이나 一箇에 七情을 아울러 쓴 것은 또한 理一邊을 취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고⁶⁰⁾ “『중용』의 네 情(喜怒哀樂)은 氣發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四端과 더불어 對舉하지 않으면 七情의 善一邊은 氣質에 섞이지 않는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라고 했다고 하면서⁶¹⁾ 이황이 앞에서 논의를 하였고 이상정이 뒤에서 闡明하였다고 하였다.⁶²⁾ 이진상은 이익과 이상정이 四端과 七情이 모두 理發임을 비로소 밝혔다고 하였다. 이같이 이진상이 평소 이상정의 학설을 많이 인용했다는 사실로 보면 그의 학맥은 이상정의 학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³⁾

한편 정종로는 만년에 이상정의 문하에 나아가 직접 七情도 理發이 있다

가 믿고 따랐는데, 윤동규는 이병휴와 거의 20여년간 학설논쟁을 벌였다고 한다(李丙燾, 『韓國儒學史』, 亞細亞文化社, 1987, 428~429쪽).

58) 『寒洲文集』 권8, 書, 答尹士善別紙.

59) 『大山文集』 권10, 書, 答李天膺別紙.

60) 『大山文集』 권10, 書, 重答李希道 乙丑.

61) 『大山文集』 권20, 書, 答李希道 甲子 別紙.

62) 『寒洲文集』 권10, 書, 答權可器 壬戌 別紙.

63) 李相夏, 『寒洲 李震相 性理說의 입론 근거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176쪽.

는 뜻을 듣고 후인들에게 제시하였고 金熙周에게 보낸 편지에 정밀하고 밝게 말했다고 하였다.⁶⁴⁾ 이진상은 칠정도 이발이 있다는 설은 정종로가 평생 주장한 주요 학설이라 하면서 이러한 설은 백대 뒤를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익도 만년에 公喜怒理發의 설을 주장하였다고 하면서⁶⁵⁾ 정종로의 학설을 이익, 이상정의 학설의 계승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진상은 자신이 異端亂徒의 科로 지목을 받고 있다고 슬퍼하였다. 그러나 진실로 이에 마땅하다면 비록 혹 일시에 비방을 받더라도 만세에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가 말한 바가 이황과 이상정의 定論에 합치하지 않는다면 감히 자신하지 못하고 고치는 것이 가하지만 時宜에 맞지 않고 大賢에 합치된다면 자기의 道를 굽혀서 결코 남을 따르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의 학설을 한번 통렬하게 진술하고 끝내 그 설을 믿지 않는다면 私의으로 깊이 갈무리하여 후세에 자기를 알아줄 자를 기다리겠다고 하였다.⁶⁶⁾

이진상은 七情에는 理發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여러 학자들은 도대체 分關說을 모르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七情이 진실로 氣發이 되지만 渾淪說에는 理發이라고 말해도害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⁶⁷⁾ 이진상은 칠정이발을 주장한 정종로에 대해 문장이 훌륭하고 의리가 정밀하고 명백하며 참으로 이황의 宗旨를 터득했다고 하였다.⁶⁸⁾ 이에 허유도 정종로의 편지는 吾宗의 淵源이 있는 바를 증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⁹⁾

이진상은 정종로가 “七情도 理發이 있다.”라고 한 설이 반드시 「성학십도」

64) 『寒洲文集』 권23, 書, 答張舜華 癸未.

65) 『寒洲文集』 권23, 書, 答張舜華 癸未.

66) 『寒洲文集』 권9, 書, 答李謹休 乙丑 別紙.

67) 『寒洲文集』 권19, 書, 答郭鳴遠疑問 贊疑錄 庚午.

68) 『寒洲文集』 권15, 書, 答許退而. “立齋先生論七情書鳴遠會所願見故贈送, 此老文章活熟, 義理精暢, 真得陶山之宗旨.”

69) 『后山文集』 권5, 書, 上寒洲先生. “立齋書其一可以驗吾宗淵源所在.”

의 중도의 뜻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설이 저절로 분명하다고 하였다. 중도설은 '모두 이발이다'라고 이르면 가하지만 '또한 理發이 있다'라고 이르면 도리어 本然과 氣質이 서로 대하여 두 性이 되어 하나는 나와서 理發이 되고 하나는 나와서 氣發이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황 당시에는 학자가 습하는 것을 믿고 그 나누어지는 것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평생 문답이 분에 자세하고 습에 소략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 뜻은 理를 주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근일에는 학자가 나누어지는 것을 믿고 합해지는 것을 의심하여 나뉘이 너무 지나쳐 互發이 변하여 各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정이 이미 七情性發의 뜻으로 누누이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渾淪說 중에 특별히 理發의 뜻을 인용하였다고 하였다.⁷⁰⁾

이진상은 정종로가 이황의 『성학십도』의 중도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발이라고 한 말을 제시하여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발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황이 일찍이 예로부터 학술의 어긋남이 理字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성학십도』의 하도를 그려 특별히 互發의 설을 제시한 것은 性を 논하고 氣를 논하지 않으면 완비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진상은 오랜 사색의 결과 “發하는 것은 理이고 發하게 하는 것은 氣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진상은 주희가 「樂記」의 설을 해석하면서 “그 느낌이 있음에 미쳐 문득 이 理의 發이다.”라고 했고, 『중용』의 설을 논하여 말하기를 “이 중에 있는 理에 나아가 形이 밖에 發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모두 四端과 七情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⁷¹⁾

한편 이진상은 주희의 七情의 설은 이미 「禮運」속에서 나왔으니 「예운」에서 말한 바는 또한 氣의 發이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⁷²⁾ 이러한 사실

70) 『寒洲文集』 권10, 書, 答權可器 庚申.

71) 『寒洲文集』 권5, 書, 上崔海庵別紙.

72) 『禮記』 「禮運」의 해당 구절은 “故聖人耐以天下爲一家, 以中國爲一人者, 非意之也, 必知其情, 辟於其義, 明於其利, 達於其患, 然後能爲之. 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 七者

은 奇大升이 증명하지 못했는데 이상정이 증명을 하였고 이익도 증거로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이진상은 이익이 「예운」의 설을 인용하여 七情이 이 미 形氣에서 나왔다고 단정을 했다고 하면서 그 七情은 氣發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거론하였다.⁷³⁾ 또한 이진상은 이상정의 『大山文集』을 읽으면서 「예운」설을 인용한 것을 보고 본래의 뜻을 궁구하여 단언하기를 “이것은 氣發의 명백한 증거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七情 두 글자는 「예운」에 처음 나오고 다른 경전에 보이지 아니하니 칠정을 말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예운」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⁷⁴⁾

이진상은 이상정이 「예운」의 칠정에 해당되는 조목을 渾淪說에 편입했으니 대개 그가 따로 剔發說을 세우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홀지게 理를 지적하고 氣를 지적하는 것을 또한 혼륜설에 넣은 것이고 待對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⁷⁵⁾ 이진상은 七情은 氣發이라는 설은 원래 「예운」에서 나왔는데, 여러 선생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다만 『중용』, 「樂記」, 「好學論」으로 홀지게 理를 가리키거나 겸하여 理를 가리키는 곳을 논하여 증거를 삼았기 때문에 학설이 분분하여 끝내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진상은 「예운」의 뜻이 일찍 밝혀졌더라면 十義는 道心이 되고 七情은 人心이 되는 것이 단연코 의심이 없고 기대승과 李珣의 논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진상은 이상정과 이익 두 선생이 비로소 「예운」의 설을 취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사단에 대한 칠정은 기의 발이 된다

弗學而能，何謂人義？父慈，子孝，兄良，弟弟，夫義，婦聽，長惠，幼順，君仁，臣忠，十者謂之人義。講信修睦，謂之人利，爭奪相殺，謂之人患。故聖人之所以治人七情，修十義，講信修睦，尚辭讓，去爭奪，舍禮何以治之？飲食男女，人之大欲存焉，死亡貧苦，人之大惡存焉，故欲惡者，心之大端也。人藏其心，不可測度也。美惡皆在其心，不見其色也。欲一以窮之，舍禮何以哉？”

73) 이익이 「禮運」을 인용하여 七情이 形氣에서 나왔다고 한 기록은 「四七新編」(『星湖全書』7) 圖說 제16에 보인다.

74) 『寒洲文集』 권9, 書, 與李謹休 別紙 甲子 大山集四七疑義.

75) 『寒洲文集』 권10, 書, 答李稚肅 別紙.

는 것이 비로소 분명한 증거가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진상은 이상정이 「예운」설을 취하여 渾淪說에 넣었는데 南漢朝가 이것으로 理氣를 兼한다는 증거로 삼았으니 未安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예운」에 이미 飲食, 男女, 死亡, 貧苦의 大端으로 君仁, 臣忠, 父慈, 子孝의 大倫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무엇을 人義라고 이르며 무엇을 人情이라 이르는 가라는 말로 發端을 했으니 人心道心の 설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⁷⁶⁾

이진상은 이황 이후 이익, 이상정, 정종로의 학문연원 속에서 자기의 이학의 근거를 설정하고 있었다. 「심통성정도」 중도에서 제시된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발이라고 한 설을 그는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상정을 거쳐 정종로에 이르러 이 설이 주장되고 있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황의 학문 宗旨를 얻은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다.⁷⁷⁾

4. 이학의 사상사적 전개와 의의

1) 한주 이학의 전개

1886년(고종 23) 10월 15일(음)에 이진상이 작고하자 영남의 많은 학

76) 『寒洲文集』 권14, 書, 答宋康叟 別紙.

77) 이진상의 「칠정이발」설에 대한 근거에 대해 이진상의 아들 이승회는 「道南通文條辨」에서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抑謂退陶所云理氣互發, 實謂兩體各發, 而與栗谷所言萬情發於理, 有異耶? 夫栗谷異處, 只有氣發一疑, 其原本而發於理, 則豈惟栗谷爲然? 朱子曰七情亦發於性, 退陶曰七情亦發於仁義禮智, 愚伏先生曰喜之理在中, 故發之爲喜, 怒之理在其中, 故發之謂怒, 無其理則何以發乎? 星湖先生曰理發氣發, 俱是理發, 大山先生曰七情亦發於性, 而有理之發, 立齋先生曰七情有理之發, 此外諸先生說亦多矣, 所謂承襲乎湖老立翁之訓, 求合乎雲谷陶山之旨者, 於此亦可見矣.”(『嶺溪遺稿』 6, 辨, 道南通文條辨). 즉 이승회는 朱熹, 李滉, 李珥, 鄭經世, 李瀾, 李象靖, 鄭宗德의 七情理發 근거를 간명하게 설명하면서, 이진상의 七情理發說이 “湖老(이상정)·立翁(정종로)의 가르침을 잇고 雲谷(주희)·陶山(이황)의 旨에 합하기를 구한 것”이라 하여 주희, 이황, 이상정, 정종로의 학맥을 제시하고 있다.

자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런데 이진상의 학설을 충실히 계승한 학자는 許愈와 郭鍾錫 등이었다.⁷⁸⁾ 허유는 이진상이 理와 氣의 관계를 交互로 본 학설을 이어 理와 氣가 交互하여 發하고 각각 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⁷⁹⁾ 또한 그는 이황의 「성학십도」 中圖의 뜻을 七情理發로 해석한 것을 前 사람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힌 것이라 하였다.⁸⁰⁾

한편 허유는 이진상의 心卽理說을 적극 지지하면서 心에 대해 더욱 義理 중심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사람이 物과 다른 까닭은 사람은 義理의 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心은 凡人이나 聖人이 같은데 心을 氣로 인식하거나 氣가 섞인 것을 心으로 삼아 人과 物의 구별이 없는 것보다는 義理의 心을 주장하여 凡人을 변화시켜 聖人을 만드는 계기로 삼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⁸¹⁾

허유는 『중용』 ‘天命之性’에서는 人과 物을 아울러 말하였으나, 『대학』의 ‘明德’의 해석에는 人이 하늘에 얻은 바라고 말하면서 物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였다. 허유는 性은 人과 物이 다 소유하고 있지만, 명덕은 오직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희가 특별히 명덕의 해석에 人(人)자를 제시하여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을 밝혔다는 것이다. 따라서

78) 이진상이 영남학계에 그 이름을 크게 드러내는 시기는 許愈와 郭鍾錫이 그 문하에 입문하는 1870년대이다. 이진상이 1861년 心卽理說을 제창한 10년 뒤인 1870년 봄에 허유가, 그리고 그 해 겨울에 곽중석이 이진상의 문하에 나아갔다. 이어 1872년 李正模, 1874년 李斗勳, 1876년 尹靑夏, 1878년 張錫英·金鎭祐가 이진상의 문하에 나아갔다. 허유는 곽중석에게 “寒洲翁(이진상)은 근세의 傑匠이다”라고 하면서, 이진상의 문하에 종유하면 얻는 바가 반드시 적지 않을 텐데, 문하에 입문하는 용단을 내렸으니 축하할 만하다고 하였다(『后山文集』 권5, 書, 答郭鳴遠鍾錫 庚午). 그러나 이정모의 경우는 1871년부터 이진상의 심즉리설을 탐문하는 정도였고(『紫東文集』 권3, 書, 答李器汝 辛未: 與李器汝 壬申) 1873년 무렵까지만 해도 그는 심즉리설에 대해 아직 의심을 하고 있었다(『紫東文集』 권2, 書, 上李寒洲先生 癸酉). 허유와 곽중석에 이어 이정모가 1874년에 이르러 이진상의 심즉리설을 지지함으로써 그 학설은 널리 보급되어 나갔다.

79) 『聖學十圖附錄』(『后山集』 參, 后山書堂, 1999), 謹書聖學十圖附錄後.

80) 『后山文集』 권3, 書, 上李寒洲先生.

81) 『后山文集』 권12, 雜著, 心合理氣說.

명덕을 氣라고 하거나 氣를 겸했다고 하면 人과 物이 구별이 없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뜻에 밝지 못하면 그 폐단은 中國이 夷狄으로 전락하고 人類가 禽獸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⁸²⁾

허유의 학문과 학술활동의 핵심은 19세기 말에 日帝와 西洋의 침략에 대응하여 義理의 解明과 闡明을 自任한 데 있었다. 허유는 이진상의 心卽理說을 계승, 발전시켜, 心의 '虛靈'을 '義理의 心'으로 보았고, '明德'을 '義理의 心'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義理의 心'을 부각하여 佛敎와 老·莊, 陸·王의 心에 대한 이해와 구별을 하였다. 따라서 이진상이 闡明한 '心卽理'의 '理'도 허유에게는 '義理'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런가 하면 곽종석은 이진상이 理學에 깊은 식견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의문을 가지고 있던 理氣와 性命에 대한 여러 학자의 同異의 설을 조별로 기록한 『贊疑錄』이란 책을 올렸다. 이진상은 『지의록』에 대하여 조목마다 답하고 발문을 붙여 곽종석에게 보내었다. 이진상은 고급 사람의 학술의 어긋남은 모두 氣는 쉽게 보이고 理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기에서 떨어져 있지 않지만 또한 일찍이 기에 섞이지도 않는다. 기는 때로 악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를 가도 선하지 않음이 없다. 옛 성인의 천 마디 만 마디 말이 '主理' 두 글자로 귀속되니 致知는 이 理를 밝히는 바이고 居敬은 이 理를 두는 바이고 力行은 이 理를 따르는 바이고 克己와 閑邪는 理를 헤치는 것을 제거하는 바일 뿐이라고 하였다.⁸³⁾

곽종석은 당시 학자들이 理와 氣를 主와 資, 尊과 卑로 구분하지 않고 도리어 卑가 尊의 자리를 훔치고 主와 資를 같은 자리에 병립하고 대치시켜, 절대적인 理의 지위가 顛倒되거나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⁸⁴⁾ 그는 심지어

82) 『后山文集』 권5, 雜著, 縣學講義.

83) 『寒洲文集』 권30, 跋, 贊疑錄跋:附錄, 권1, 年譜, 庚午.

84) 『仇宇文集』 권15, 啓, 與金獻納.

어 退溪 이래 ‘心合理氣’설도 理氣를 대등하게 이해하게 되는 현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主理’를 제창하였다.⁸⁵⁾ 그는 일반적으로 心을 말하면 理氣를 합해 있다고 말하고, 본체를 바로 지적하면 心卽理라고 하였다. 기를 합하여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心이 發하는 바로써 天理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여 省察克治의 공부를 행하지 않을 것이고, ‘卽理’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理의 純善이 心의 本然이 됨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培養擴充의 工을 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곽종석의 언급을 통해 볼 때 그는 심에 대한 해석을 인간 심성의 교화의 측면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⁶⁾

한편 1894년(고종 31) 이승희는 東學을 피하여 거창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듬해 3월에 『한주문집』을 활자로 인쇄하였다. 1896년 『理學綜要』를 교정하여 바로 인쇄에 붙였고 겨울에 문집의 출간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당에 고하였다.

그런데 1896년 『한주문집』이 간행되자 이진상의 학설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일어났다. 이황의 후손인 李晚寅이 이진상의 심즉리설은 이황의 학설과 다르다고 비판하자, 이에 대해 곽종석은 이진상의 심즉리설은 이황의 심성설 내에서 理를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⁸⁷⁾ 그러나 이만인은 이진상의 학설 중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 이황의 학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여러 조목을 논변하였다.⁸⁸⁾ 이에 대해 尹曹夏는 이만인의 글을 축조 분석하여 「反究錄」이라는 제목으로 이진상의 학설을 변호하였다.⁸⁹⁾ 뿐만 아니라 이승희도 이진상의 학설에 대한 이만인의 辨錄을 구하여 보고 이에 조목조목

85) 『侂字文集』 권130, 雜著, 柳省齋重教心說辨 辛卯.

86) 『侂字文集』 권130, 雜著, 柳省齋重教心說辨 辛卯.

87) 『侂字文集』 권13, 書, 與李監役 丙戌.

88) 『龍山文集』 권6, 雜著, 寒洲李氏動靜說條辨.

89) 『膠字文集』 권16, 雜著, 反究錄.

변론하여 아버지 이진상의 학설을 옹호하였다.⁹⁰⁾

한편 안동에서는 이진상의 理學을 僞學으로 몰아 1897년 도산서원에서 『한주문집』이 遷送되었다. 그 이유는 『한주문집』에 이황의 설에 대하여 핍박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었다. 1896년 영남에서 이진상의 심즉리설에 대한 비판이 일자, 곽종석은 心의 本體를 理로 보지 않고 理氣의 순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황의 학설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⁹¹⁾ 그는 이진상의 학문은 이황의 성리설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이황의 설을 따르는 순수한 학자, 즉 ‘陶山純臣’이라고 하였다.⁹²⁾

이진상의 심즉리설로 인하여 영남학계가 분열되자 1899년 곽종석은 李炳(定)鑄에게 편지로 心卽理說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병호는 本心이 진실로 理이지만 ‘卽’이란 글자가 너무 급하다고 하였다. 곽종석은 心은 진실로 本心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같이 설명하나 心을 범범하게 말하면 또한 마땅히 理氣를 합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고 아울러 氣質의 性에 미쳐야 하고 未發의 처지에서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황의 『聖學十圖』의 心統性情圖의 中圖가 心學의 근본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다.

곽종석은 心이 理氣를 합한다는 것은 이진상도 여러 번 말하고 글로 썼지만,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 心이 곧 理라는 설을 제창한 것은 心에 있어 귀한 바는 本心이고 眞心이고 主宰의 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本心이 理이고 眞心이 理이고 主宰의 心이 理라면 主宰의 이름은 理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였다.⁹³⁾

곽종석은 심즉리설을 비판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학설을 굳게 수호하였다. 그는 『한주문집』의 改刊을 생각하면서도 그 설이 정말로 이황에 미안한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교정이 미진하고 編例가 혹 흠이 있기

90) 『韓溪遺稿』 6, 辨, 宜錄條辨.

91) 『侂宇文集』 권36, 書, 答李子翼.

92) 『侂宇文集』 권36, 書, 答李子翼 戊戌.

93) 『侂宇文集』 권36, 書, 答李子翼 己亥.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주문집』에 실린 이진상의 학설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陶山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에게 보이어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말하였다.⁹⁴⁾

그런데 1902년 11월에 朴海齡·李中華·柳萬植 등은 이진상의 학설을 異端으로 몰아 상주향교에서 『한주문집』을 불태웠다.⁹⁵⁾ 이승희는 이러한 비통한 소식을 듣고 '新宮災素縞'의 예에 의거하여 흰 冠服으로 3일동안 아버지의 사당에 뜻을 하였다.⁹⁶⁾

한편 이진상의 문인 張志遠은 스승인 이진상의 『한주문집』을 불살라 버린 柳萬植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갚을 뜻을 품고 1903년 4월 어간에 서울에 올라 李裕寅을 접촉하였다. 이때 이승희와 이태훈도 이유인을 방문하여 유만식 등에 대한 공격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유인과 이태훈 등은 오히려 정치적 역공을 받아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⁹⁷⁾

이승희는 그뒤 『한주문집』의 초판본의 내용을 수정하고 그 誣罔을 변론하

94) 『侂字文集』 권36, 書, 答李子翼 己亥.

95) 이승희는 박해령 등이 이진상의 집안을 虎論으로 지목하여 『한주문집』을 불태웠고, 또 광종석이 의병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 이러한 화를 입었다고 하였다(『韓溪遺稿』 7, 年譜 丁酉). 1902년 5월에 朴海齡 등이 원주 韓耆東(참판)의 장례에 참석하여 몇사람과 은밀하게 공모하여 弔客錄을 훔치고 荷江壇通文을 발송하여 『한주문집』을 배척하였다. 이어 이들은 李種紀의 장례에 참석하여 통문을 발송하고 또 성균관에 통문을 보내 전국의 유림을 선동하였다. 이에 이진상의 제자들이 삼봉서당에서 회의하여 李斗勳(弘窩)을 파견하여 그 虛實을 조사하니 하강단을 설치하는 일이 없었다. 한편 公事員 이하가 이름을 冒錄당했다는 변명서가 삼봉서당에 답지하였고 성균관에서도 변명서가 나왔다. 이에 성주의 會老堂과 상주 玉洞書院, 교령 碧松亭에서는 하강통문에 답하여 그들의 무리함을 꾸짖었다. 이에 박해령 등이 크게 부끄러워하고 노하여 李中華와 함께 밀모하여 陶山通文을 발송하여 상주향교에서 道會를 열어 『한주문집』을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다(『韓溪遺稿』 7, 年譜 壬寅). 도산서원에서 『한주문집』의 환송과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山內弘一, 「李震相의 心卽理說과 嶺南學派」(『碧史李佑成教授定年退職紀念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창작과비평사, 1990) 참조.

96) 『韓溪遺稿』 7, 年譜 壬寅.

97) 『高宗實錄』 권48, 高宗 44년 1월 21일.

여 다시 완본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는 조선이 일제에게 병탄 당하자 중국으로 건너가 『理學綜要』와 『四禮輯要』, 『春秋集傳』 등을 산둥 曲阜의 大成殿에 올렸다. 한편 이승희는 1916년 아들 李基元에게 奉天 寓居로 『한주문집』 舊本을 가지고 오게 하여 校勘을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작고하였다.

한편 1916년 도산서원에서는 삼봉서당에 편지를 보내 지난날 『한주문집』을 불태운 일은 한 두 명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도산서원의 공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⁹⁸⁾ 그뒤 1925년 가을에 산청의 尼東書堂에 유림이 모여 회의를 하여 문집을 간행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었고 1927년에 삼봉서당에서 『한주문집』의 중간을 시작하여 1928년에 출간되었다.⁹⁹⁾

2) 이학의 사상사적 의의

19세기에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이론이 제기되었다. 한주의 이학도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창되었다. 특히 조선 사회의 붕괴에 위기의식을 느낀 학자들은 이제 성리학도 새롭게 이론 무장을 하지 않으면 당시 국가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이진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대로 主氣의 학문이 있었다고 하면서 도교, 불교, 양명학 등을 차례로 비판하고 성리학의 主氣說과 心合理氣說을 비판하였다.¹⁰⁰⁾ 이진상은 지금 세상의 교화가 쇠퇴하고 선비의 습관이 위축되고 氣學은 안으로 쪼들고 洋學은 밖에서 침투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이러한 난세를 만나 同志를 거느리고 유학의 도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하였다.¹⁰¹⁾ 그는 역사적으로 다스려진 날이 적고 어지러운 날이 많으며 착한 사람이 적고

98) 『韓溪遺稿』 7, 年譜 丁酉.

99) 『寒洲文集』 附錄, 後識.

100) 『寒洲文集』 권29, 序, 理學綜要序.

101) 『寒洲文集』 권13, 書, 答金聖夫.

악한 사람이 많은 것은 氣가 강하고 理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⁰²⁾

이진상은 心을 氣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그는 心이 만약 氣라면 心統性情에서 倅이 將을 통솔하고 臣이 君을 통솔하고 子가 父를 통솔하고 婦가 夫를 통솔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心이 理氣를 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황의 定論이라고 처음에 믿었으나 『주자어류』에 의거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¹⁰³⁾

이진상은 조선 학계에 心卽氣설이 주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理를 주로 하여 心을 말하는 사람을 보면 문득 心卽理는 곧 陽明의 학이라고 말하여 이것으로 理學을 배척하는 구실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진상은 사실은 陽明은 氣를 理로 인식하고 세상의 학은 理를 氣로 인식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⁴⁾

이진상은 “옛 사람이 心을 논하는데 心卽理보다 더 선한 것이 없고 心卽氣보다 더 선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심즉리’설을 정립하였다.¹⁰⁵⁾ 그는 심즉기설은 근세의 학자의 설이라고 하면서 심즉기설이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였다.¹⁰⁶⁾ 그는 心이 氣라면 氣가 一身의 主宰가 되니 主宰가 氣라면 天理를 滅하고 人欲을 窮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⁷⁾ 그는 心이 一身의 主宰가 되는데 主宰로써 氣에 속하게 하면 天理가 形氣에 명령을 듣고 허다하게 추악한 것이 마음에 서리게 된다고 하였다. 心은 體가 없고 性으로써 體를 삼는데 지금 心을 氣라고 이르면 性을 氣로 알게 되는 것이니 告子의 견해로 사람이 禽獸와 다름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心은 性情의 統名인데 心으로써 氣를 삼으면 大本과 達道가 모두 기로 돌아가고 理는 死物이 되

102) 『寒洲文集』권14, 書, 答宋康叟.

103) 『寒洲文集』권16, 書, 答李器汝.

104) 『寒洲文集』권25, 書, 答李叔瑞璿鉉.

105) 『寒洲文集』권32, 雜著, 心卽理說.

106) 『寒洲文集』권32, 雜著, 心卽理說.

107) 『寒洲文集』권8, 書, 答尹士善別紙.

어 空寂에 빠진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성현은 義理를 주로 하여 心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心으로 氣를 삼는 설이 행해지면 성현의 心法이 일일이 空으로 떨어지고 학문은 두뇌가 없고 世教는 날로 혼란으로 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근세에 十六言傳心을 梅璘의 僞撰이라고 하는 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작은 근심이 아니라고 하였다.¹⁰⁸⁾

이진상은 心이 一身의 主宰가 되는데 주재하는 것이 理이기 때문에 心卽理라는 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心의 主宰는 明堂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데 禮樂刑政이 天子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고 氣의 作用은 臣下가 명령을 받들고 가르침을 받드는 것과 같아 外面에서 보면 君道가 하는 것이 없으나 하는 바가 있는 것은 모두 신하이니 사람들은 성근 것을 보고 정밀한 것은 빠뜨리며 말을 잡고 근본을 헤아리니 氣學이 성한 까닭이라고 하였다.¹⁰⁹⁾

이진상은 학문은 理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고 理를 밝히는 것은 장차 理를 順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이학을 제창한 것이 이단을 물리치고 正道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理를 견주면 君이고 父이며, 氣를 견주면 臣이고 子이다. 천하의 大本은 오직 理에 있다. 그러므로 옛 성인의 천마디 만마디 말이 主理일 뿐이고 氣에 대한 설명은 소략하다고 하면서 대개 주기로 설을 삼으면 비록 정밀한 경지에 이르렀더라도 이미 第二義에 전락하게 된다고 하였다.¹¹⁰⁾

이진상은 理가 항상 氣를 부리면 세상이 어지럽거나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기가 도리어 이를 부리면 신이 도리어 군을 헐박하기 때문에 다스려지는 날이 적고 어지러운 날이 많으며 착한 사람이 적고 악한 사람이 많을 따름이라고 하였다.¹¹¹⁾

108) 『寒洲文集』 권10, 書, 答姜耘父 甲辰.

109) 『寒洲文集』附錄 권2, 行錄.

110) 『寒洲文集』 권14, 書, 答宋康叟.

111) 『寒洲文集』 권19, 書, 答郭鳴遠疑問 贊疑錄 庚午.

이진상은 당시를 氣學이 판을 치는 시대로 인식하고¹¹²⁾ 세교가 더욱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자신의 힘이 비록 미약하지만 이학을 통해 기학과 洋學이 만연하는 시대를 구제하려고 하였다.¹¹³⁾

이진상은 주자학에 근거를 두되 평이하고 간명한 심즉리설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는 理를 밝히는 요점은 氣를 항복시키는데 있다고 하였고¹¹⁴⁾ 主氣의 學이 학계에 만연하는 현실을 막으려고 하였다.¹¹⁵⁾ 이러한 이진상의 심즉리의 이학은 기학과 양학이 만연한 시대를 치유하고 개항 이후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제창된 주자학의 새로운 이론이었다. 한주 사후 허유와 곽종석, 윤주하, 이승희 등의 적극적 변론으로 한주 이학은 불속에서 다시 살아남아 곽종석에 의해 그 마지막 光焰을 발하였다. 1919년 유립단독립청원운동에 곽종석이 전국 유립대표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전국 유립을 하나로 정신적 단결을 할 수 있게 한 저변에는 主理 중심의 한주 이학이 자리하고 있었다.¹¹⁶⁾ 특히 한주 이학의 정통 계승자인 곽종석에 의해 1919년 전국 유립이 통합되어 유립단독립청원운동으로 열매를 맺음으로서 한주 이학은 조선 유학의 사명을 다하였다.

5. 맺음말

이진상은 『朱子語類』에 수록된 기록의 시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주희의 초년과 만년설의 차이를 밝혀내고, 아울러 조선 理學이 16세기 중반 이후 걸

112) 『寒洲文集』 권17, 書, 答鄭厚允別紙.

113) 『寒洲文集』 권15, 書, 答許退而.

114) 『寒洲文集』 권16, 書, 答李器汝.

115) 『寒洲文集』 권16, 書, 答李器汝 : 권18, 書, 答李聖養.

116) 이진상의 성리설의 계승과 파리장서사건에 대해서는 洪元植의 「이진상의 철학사상과 그의 후예들」(『東洋學』 2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9) 11~14쪽 참조.

어은 天命과 性, 情, 心에 대한 사상사적 논쟁의 편력을 검토하여 대담하게 心卽理說을 제창하였다. 그는 주희와 이황의 이학의 핵심이 심즉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心을 理氣의 습으로 보는 설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心을 理로 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心을 氣로 보는 학설로는 氣學과 洋學이 만연하는 자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심즉리설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그의 심즉리설은 당시 영남학계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학설이었기 때문에 잠시 異端으로 몰려 그의 이학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이진상은 『주자어류』와 「聖學十圖」中圖와 下圖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심즉리설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그는 李灝, 李象靖, 鄭宗魯의 논설을 제시하며 이황의 「心統性情圖」중도의 핵심이 四端과 七情 모두 理發임을 주장한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는 안동의 학자 柳致明, 金岱鎭 등과 학문토론을 통해 심즉리설과 七情理發說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갔다. 특히 이진상은 자신의 이러한 학설이 이황의 「성학십도」의 「심통성정도」의 중도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학설은 이익과 이상정, 정종로의 견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익이 『禮記』의 「禮運」을 인용하여 「성학십도」의 「심통성정도」의 하도의 七情이 氣發이라는 설도 그 증거가 명백하게 제시되었다고 하였다.

이진상은 心과 性を 두 갈래로 보는 설은 그 해가 主氣보다 심하다고 하였다.¹¹⁷⁾ 그는 심과 性を 두 갈래로 보는 설을 배척하고 心性을 一理로 보았다. 또한 그는 이황이 性情—理라고 한 것을 수용하여 性과 情을 하나로 이해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사단칠정의 이발과 기발의 문제에 있어서 사단과 칠정을 모두 理發로 이해하고 發하는 것은 理이고 發하게 하는 것은 氣이다(發者理, 發之者氣) 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진상의 심즉리와 칠정이발 등

117) 『寒洲文集』 권25, 書, 答崔庸仲正基 乙亥.

의 새로운 해석과 闡明은 주희, 이황, 이익, 이상정, 정종로의 성리설의 傳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진상은 주자학에 근거를 두되 簡明하고 平易한 心卽理說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진상의 이학은 氣學과 洋學을 물리치고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제창되었다. 그런데 그의 이학은 이황의 학설에 배치된다고 하여 이단으로 몰려 1902년 상주향교에서 『한주문집』이 불태워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허유와 곽중석 등은 심즉리설이 주희와 이황의 학설에 배치되는 학설이 아니라고 적극 변론을 하여 1916년에 도산서원에서 상주의 분서사건이 도산서원의 公議가 아니었다고 해명함으로써 한주 이학은 불 속에서 다시 살아남아 장차 전국 유림이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하나로 통합되어 나가는데 마지막 光焰을 발하였다. 한주 이학의 정통 계승자인 곽중석이 주도하여 1919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전국 유림이 하나로 정신적 단결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이같이 主理 중심의 한주 이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원전

寒洲文集, 膠字文集, 大山文集, 俛字文集, 立齋文集, 星湖全書(여강출판사), 星湖全集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龍山文集, 韓溪遺稿, 后山文集

■ 논저

- 송찬식, 「조선조말 주리파의 인식논리-한주 이진상의 사상을 중심으로-」(『한국학보』 9, 일지사, 1977)
- 김동혁, 「한주 이진상의 주리철학에 관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4)
- 이병도, 『한국유학사』(아세아문화사, 1987)
- 강대걸, 「한주 이진상의 이기설 소고」(『북악논총』 5, 국민대학교, 1987)
- 김문용, 「한주 이진상의 사단칠정론」(『사단칠정론』, 민족과 사상연구회, 서광사, 1992)
- 안영상, 「극단으로 간 퇴계주의자-한주학파」(『조선유학의 학파들』(한국사상사연구회, 1996)
- 금장태, 「퇴계학파의 학문-한주 이진상의 성리학파 심즉리설」(『퇴계학보』 102, 퇴계학연구원, 1999)
- 김형찬, 「이진상의 심도 및 주재도」(『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한국사상사연구회, 2000)
- 홍원식, 「한주학파의 공자교운동」(『한국학논집』 26,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9)
- 이동희, 「한주학파의 퇴계 성리학 계승」(『한국학논집』 26, 1999)
- 홍원식, 「이진상의 철학사상과 그의 후예들」(『동양학』 2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9)
- 山内弘一, 「이진상의 심즉리설과 영남학파」(『백사이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창작과비평사, 1990)
- 홍원식, 「퇴계학의 남전파 한주학파」(『한국의 철학』 30,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1)

- 김도형, 「한주학파의 형성과 현실인식」(『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권대응, 「한말 한주학파의 계몽운동」(『대동문화연구』 38, 2001)
-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성리학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상하, 「한주 이진상 성리설의 입론 근거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권오영, 『조선 후기 유럽의 사상과 활동』(돌베개, 2003)

Abstract

A scholastic mantle of Han Ju(寒洲) Li Learning(理學) and
meaning of its ideological history

Kwon, Oh-Young

Han Ju Lee Jin Sang who was prestigious confucian scholar in the later of Chosun dynasty revealed the difference between his young days and afternoon of life theory. Moreover he suggested adamantly that mind is just a Li(理) by analyzing theory of historical ideologies about Chosun Li Learning of Providence(天命), nature(性), emotion(情) and mind(心) in the later part of 16 centuries.

His theory of mind is just Li(理) was a new fresh one in Kyungsang province so it was covered temporarily by stigmatizing as a heterodoxy.

And Lee Jin Sang suggested that mind is Li by closely analyzing Jung Do(中圖) and Ha Do(下圖) in Seong Hak Sip Do(聖學十圖) of Lee Whang. He proclaimed that Lee Whang's gist of Jung Do(中圖) of the Sim Tong Seong Jeong Do(心統性情圖) is illustrating Li initiating including Sadan(四端) and Chiljeong(七情)

Especially Lee Jin Sang said that his theories is just meaning of Jung Do(中圖) of the Sim Tong Sung Jeong Do(心統性情圖) in Sung Hak Sip Do(聖學十圖), and stressed many times that his theory can be confirmed in the articles of Lee IK(李瀆), Lee Sang Jeong(李象靖), Jeong Jong Ro(鄭宗魯)

Such a new reinterpretation and proclaim of Lee Jin Sang's Mind is Li(理) and Chil Jeong Libal(七情理發) is based on the Sung Confucianism (性理學) tradition of scholars' like Ju Hee(朱熹), Lee Whang, Lee Sang Jeong, Jeong Jong Ro.

Lee Jin Sang's Li studies has been promoted to overcome foreign attack and banish Ki Learning(氣學) and Western Learning(洋學)

Lee Jin Sang has tried to overcome difficult period with easy and simple mind is Li(心即理) theory. However his Li Learning regarded as

heterodoxy because of his theory is contradict to Lee Whang's theory. In the end, Lee Jin Sang's anthology of Han Ju Moon Jip(寒洲文集) is burned at Sang Joo Confucian school(尙州鄕校).

But Huh Yu(許愈) and Kwak Jong Seok(郭鍾錫) advocated his theory is not contradict to Lee Whang. After that in 1916 Dosanseowon(陶山書院) which is center of Lee Whang's academic circles announced that the incident of burning book is not public will of Lee Whang's academic circle surrounding Dosanseowon(陶山書院). So HanJoo's Li studies survived in the flame of fire and became a principle for integration of confucian scholar's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Kwak Jong Seok who is successor of Han Joo Li took initiative in spiritual cooperation among confucian scholars for national independence in 1919. Behind such a movement, there was Li Learning centered Han Joo Li Learning has been a driving forc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Key Word

Mind is Li(theory on the mind), Lee Jin Sang(李震相), Li Learning(理學), Han Joo anthology(寒洲文集)